

염 · 안료 부가가치 극대화 시급!

BTX · 콜타르 충분하나 고가의 중간체 수입 ... R&D투자도 미비

국내에서는 염 · 안료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체 기초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가의 중간체를 수입하고 있어 고부가가치의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염 · 안료는 석유 · 석탄공업에서 나오는 방향족 탄화수소(BTX) 및 콜타르(Naphthalene계 · Anthraquinone계)를 기초원료로 사용해 주요 화학반응을 총동원하는 고도의 합성기술을 적용하는 공업으로 국내에서는 BTX, Naphthalene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고가에 수입하고 있다.

염 · 안료공업은 저가인 BTX 및 콜타르로 중간체를 합성해 고가인 염 · 안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크며, 기타 정밀화학공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. 또 다른 화학공업에 비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중이 적다.

아울러 고수준의 장치산업이며, 생산시설이 소규모인 Batch System으로 생산이 가능해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시설투자비가 매우 적다.

반면, 염 · 안료공업은 공해산업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신소재의 출현, 기호 변화, 경제적 요구 등으로 신제품이 다량 출시되고 있어 수명이 짧아 신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&D투자가 필요하지만 생산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, 전문화돼 있어 신규개발이 매우 어렵다.

염 · 안료공업은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유기합성염료는 7000여가지, 안료는 700여종(유기안료 500여종 · 무기안료 200여종)이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1/14>